

작품展을 마치고...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

「씨그레이브」기념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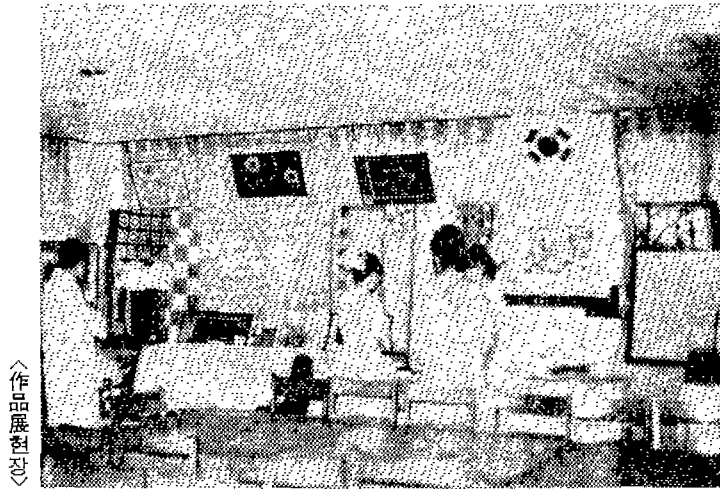
간 호 과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약 4km 외딴 농촌에 자리한 저희 개정병원은 5층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농촌 보건향상을 위해 위대한 뜻을 펴신 이영준박사님과 원장이신 김경식박사님 그리고 정신과 원장이신 최춘호선생님을 모시고 17명의 의사와 29명의 간호원, 11명의 보조원으로 구성된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4계절의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계절의 감각에 민감한 정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간호과에선 새로 부임하신 고부원 간호과장님의 뜻에 따라 간호과 명칭을 「성호회」라 명명하고 제 1회 작품전을 벌였습니다. 가을과 더불어 극화 향기 그윽한 10월을 맞이하여 평소 저희 간호원 한사람 한사람이 간직해온 숨은 솜씨를 섬섬옥수의 호뜻함 속에 가을서정을 맘껏 실고 잘익은 석류알 처럼 여러 관람객의 마음을 붉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작품전은 74년 10월 21일 「씨그레이브(Seagrave) 다실에서 간호과(성호회) 주최로 「씨그레이브」기념병원, 개정뇌병원, 개정간호전문학교, 모세스영아원, 원우회의 후원을 얻어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이날 관람객은 걸을 수 있는환자, 환자보호자 및 군산시민, 전북지부 간호원과 의료기관의 관계인사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또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까지 겸하니 장래 저희 간호과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관람객으로 부터도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에는 자수 부문에 신경자의 “병풍”, 시화부문에 이경자의 “간호원의 미소”, 미술부문에 김 선옥의 “단풍”, 사진부문에 전순오의 “아이들”, 꽃꽂이부문에 김영희의 “시집가는 날”이었으며 창조작품은 마취과 이수찬선생님의 “다보탑”과 정신과 환자들의 그림에서 대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개개인의 자랑을 몽땅 실고 싶지만 지면상 시 한편만 소개하여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성호회의 연례행사로 가질 예정인 이 작품전에 대한간호협회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간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과의 숨은 숨씨 가을 抒情에 실어



〈작품전시장〉

>담선 시<

간호원의 미소

그것은
빼이얀 안개속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다.
우리가 사는 겨울나라
얼어붙은 지심에서
수선화 한송이 곱게 피워내는
우리는
가슴 앓는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고,
무수한 산악을 달리는 사슴이다.
어디로 가는가!
그대의 향기로운 편이 뿔뿔히

어디로...
우리는 안다
수심이 분주한 현관을 지나
응달진 이방인의 머리카락에
생명의 만나로 내리는 그대
피 환방을
薔薇여
그대는 어떻게 하늘과 만나는가
용케도 살아남은 천사여 비둘기여

이 경 자

<3 병동 간호원>